

중국 북경, 무한에서 소장된 한국 고지도 조사 연구 현지조사 후기

국사학과 박사과정

2021-39902 이호

안녕하세요. 국사학과 조선시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이호입니다. 현재 조선시대 한중 지도학 교류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문화 교류사 분야의 주제로, 중국을 방문하여 현지에 소장된 한국 고지도 실물 및 관련 사료를 조사·정리한 것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소망입니다. 또한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전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3월 초에 아시아연구소에서 대학원생 현지조사 사업을 공고하자마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도 선정되어 2023년 여름방학 30일 동안 중국 북경과 무한 지역의 여러 도서관·박물관·기록관을 찾아다니며 한국 고지도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고, 중국 지도학사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중 지도 교류사 연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현지조사를 미리 시작하여 조사 활동을 더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아시아연구소의 담당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왕복 항공권 구매부터 중국 현지에서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다양한 비용 제출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받았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마치고 6월 22일 오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북경 다싱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로 7월 8일까지 북경에서 현지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당시 북경의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가며 날씨가 매우 더워 햇살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힘든 조건에서도 이번 조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고지도 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조사 활동은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경대학 도서관에서는 한국 고지도 5부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제1역사당안관, 중국 국가도서관, 중앙민족대학 도서관, 청화대학 도서관, 북경사범대학 도서관, 중국 국가박물관, 중국과학원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조사 성과를 받았지만, 고지도에 대한 엄격한 접근 제한으로 인해 고지도 실물에 직접 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학원 도서관에서는 고지도와 관련된 사회과학류 도서 전체를 폐쇄하는 정책으로 한국 고지도 2부의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다. 또한 중앙민족대학 도서관의 경우 2020년 이전에는 고지도를 볼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고지도 열람이 불가능한 정책으로 변경되어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북경 체류 기간 동안, 도서관 방문 외에도 많은 중국의 지도학 및 역사 분야 학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북경대학 지리학과 당소봉 교수, 중앙민족대학 사학과의 팡웅, 황의군 교수,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이론연구소의 유찬 연구원 등과 만나 교류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자들에게 박사 논문 주제를 소개하고 한중 지도학 교류사 연구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시각과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새로운 생각을 얻었습니다.



7월 8일 오후 5시에는 다음 조사지인 무한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무한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무한은 중국 중부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로, 다수의 교육 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한대학 도서관, 화중사범대학 도서관, 중남재경정법대학 도서관, 호북성 도서관, 무한시 도서관 등을 찾아가며 한국 고지도 소장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한 지역 도서관의 한국 고지도 소장량과 종류는 북경과 비교하여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고지도는 흔히 볼 수 있는 판본이었습니다.

또한 무한에 거주하는 중국 학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중남재경정법대학 도서관 모지주 사서와 장강대학 중국어학과 서사우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 고지도 연구와 한중 지도학 교류에 대한 의견과 관점을 공유하였습니다. 7월 17일 밤에는 관동성 신천시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출발하였으며, 20일 밤까지 신천시에서 잠시 머물다가 21일 새벽 2시에는 마카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조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중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저의 박사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연구소에게 지원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연구소는 제게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중국 현지조사 도중 한국 귀국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큰 당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 측에 상황을 알리니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현지조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현

지조사에서는 제 부족함과 중국 도서관 측의 관리 정책 등으로 인해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 추후 노력하여 수정과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활동의 주최 기관인 아시아연구소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